13강. ‘우정(과 평화)’의 글로컬리티 : 오성과 한음

학습목표와 학습내용

1) 학습목표

-. 인생의 행복의 주요 요소인 친구의 의미 재음미

-. 한국의 대표 우정 이해

-. 한국인의 평화로운 삶에 대한 헌신

학습목표와 학습내용

2) 학습내용

-. 이항복과 이덕형의 삶

-. 오성과 한음의 우정

-. 우정과 평화의 글로컬리티

1. 서론: ‘오성과 한음’ 그리고 글로컬리티

우정(과 평화)의 상징 '오성과 한음',



"오성(이항복)은 가산면에 묘소와 신도비가 있고, 화산서원에 제향되고 있으며, 한음(이덕형)은 ……신북면 소재 용연서원에서 제향되고 있는 우리시의 명현으로서 맑고 큰 눈을 가지고 **재치가 넘치는 어린 도령의 모습을 통하여 어린이에게는 미래의 꿈과 희망을 주고, 어른에게는 향수**를 불러일으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."
출처1) 포천시청 누리집

포천의 캐릭터 '오성과한음'



" 기본동작 포천시의 캐릭터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이므로 사용 시 예시된 항목별 규정에 따라 수록된 데이타 원고를 사용하여야 하며, 임의로 변경 사용할 수 없다.
캐릭터의 최소사이즈는 세로사이즈 18mm로 규정한다.
"

우정(과 평화)의 상징 '오성과 한음'

花山書院



- 현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가산로 227-40
- 백사(오성) 이항복 배향 서원
- 1631년(인조 9) 옥금동에 창건시 백사서원,
- 1635년 현재로 이건,
- 1659년(효종 10) 꽃뫼 지명을 따서 '花山' 사액받음
- 좌동, 화산서원)

" 이덕형과 조경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"
- 출처1-1) 디지털포천문화대전(용연서원)

우정과 평화의 상징 '오성과 한음',
-> 포천: 우정과 평화의 글로컬리티

龍淵書院

- 1619년 문익공 이덕형(文翼公 李德馨)과 용주(龍洲) 조경(趙絅)을 모시기 위해 건립
- 16192년 사액(賜額) 서원
- 1976년 8월 27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70호 지정
- 포천시 신북면 신평2리 165번지



출처2) 디지털포천문화대전(화산서원)

2. 행복한 삶과 우정

행복한 삶과 우정

벗
Friend
친구(親舊)
죽마고우
지기(知己)
老朋友

행복한 삶과 우정, 친구

學而時習之 不亦說乎
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
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"

출처3 <論語>

以友輔仁"

출처4 <論語>

지혜와 미덕을 추구하는 공동의 헌신"

-소크라테스(출처5 <리시스>)

행복한 삶과 우정, 친구

父子有親　君臣有義

夫婦有別　長幼有序

朋友有信

-출처6<孟子>

행복한 삶과 우정, 친구

"이제 우리는 **우정**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네.
서로 함께 있으면 즐거운 것, 많은 것에 뜻이 맞는 것,
서로 선의를 품고 좋아하는 것이라고 말일세.
지혜를 제외하고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우정보다 좋은 것을 나는 모르겠네."

-출처7) 키케로, 「우정에 관하여」

『또 다른 나, 친구(Frisndship)』

- 출처8) 앤서니 그레일링

포천의 '오성과 한음'

1556-1618

1561-1613





출처9) 17세기, 작자미상, 서울대박물관 소장

출처10)연대 & 작자 미상, 동아대박물관 소장

우정과 평화의 상징, 오성과 한음

:

학문
임진왜란
정유재란
국난극복
내치
외교

→

해학

우정

평화

위기조선 → 행복조선

‘오성과 한음’의 해학적이야기(1)

오성과 한음이 서당에서 공부할 때 스승이 졸았다.
오성과 한음: “불이야.”
스승이 깜짝 놀라 깼다. 스승은 멀뚱하니 무안했다.
스승: “잔 것이 아니라 공자님을 만나고 온 것이니라.”

이번에는 두 소년이 졸기 시작했다.
스승이 꾸짖었다. 두 소년도 자신들이 공자님을 뵙고 왔다고 말했다.
스승: “그래? 공자님이 뭐라고 하시더냐?”
오성과 한음: “공자님은 스승님을 뵌 적이 없다고 합니다.”

‘오성과 한음’의 해학적이야기(2)

대궐에서의 일이다. 둘은 서로가 자기가 아버지라며 농담을 했고, 선조가 이를 보았다. 서로 옥신각신만 하니 보다 못한 선조가 아비, 아들을 가려주려고 아비 부(**父**) 자와 아들 자(**子**)자를 종이에 써서 땅에다 놓고 쥽게 했다.

한음이 아비 ‘부(**父**)’자가 들어있는 종이를 집고 “보소서 **臣**이 아비가 아니면 누구이겠습니까.” 한음은 신이 났다.

그런데 오성도 아들 ‘자(**子**)’ 글자를 들고 싱글벙글했다.

선조: “오성, 아들 ‘자’자를 집었는데 어찌 그리 싱글벙글하시는가?”

오성은 종이를 무릎 위에 올려 놓고 답했다.

“신이 늘그막에 아들을 얻어 무릎에 앉혔으니 이 아비의 마음이 어

‘오성과 한음’의 해학적이야기(3)

백사(오성)가 비국(**備局**) 자리에 참석하다가 늦었다.

백사: “도중에 싸움광경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늦었습니다.”

여러 재상: “무슨 싸움이었어요?”

백사: “내시가 중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, 중은 내시의 불알을 잡고 있었지요.”

여러 재상들이 크게 웃었다. -출처II)<기문총화> 권4

→ 오성이 골계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허위 숭상을 풍자





졸기

“전 영의정 **李德馨**이 卒하였다. 이때 죄를 주자는 논계는 이미 중지되었는데, 덕형은 楊根에 있는 시골집에 돌아가 있다가 병으로 졸하였다. 덕형은 일찍부터 公輔가 되리라는 기대를 받았는데, **文學과 德器는 李恒福과 대등하였으나, 덕형이 관직에서는 앞서, 38세에 이미 재상의** 반열에 올랐다 **임진년 난리 이래 공로가 많이 드러나 중국인이나 왜인 모두 그의 聲名에 복종하였다.**





졸기

“사람됨이 간솔하고 까다롭지 않으며 부드러우면서도 능히 바
발랐다.[爲人 簡而不刻, 柔而能正]. 또 黨論을 좋아하지 않아
外舅인 李山海가 당파 가운데서도 持論이 가장 편벽되고 그
문하들이 모두 간악한 자들로 본받을 만하지 못하여
덕형은 그늘 누구와 친하지 않았다. 이 때문에 자주
소인들에게 곤욕을 당하였다.
그가 졸하였다는 소리를 듣고 원근의 사람들이 모두
슬퍼하고 애석해 하였다.”
--광해군일기 26권, 광해 5년 10월 9일 癸巳(1613년 萬曆
41년), 전 영의정 이덕형의 졸기”

3. 평화의 글로컬리티, 포천

3. 평화의 글로컬리티

"오성과 한음의 생애와 치국, 임진왜란 극복"

+

"위기 속에서도 장난과 여유, 그리고 평생 우정"

↓

"우정과 평화의 글로컬리티, 오성&한음"

조선후기, 특히 일제강점기 '오성과한음이야기' 붐 이유

임진왜란 국난극복, '오성과 한음'



출처11) 박대윤 기자, 인천투데이, 2025.03.16

오성(백사) 李恒福(1556 ~ 1618)

- 본관 **慶州**,
- 자 **子常**,
- 호 **白沙·弼雲·清化眞人·東岡·素雲**, **諡號 文忠**,
- 별칭: **鰲城府院君**, 오성, 오성대감, 동강노인

- 경기도 포천 출생, 주요저서 《백사집》

- 형조판서와 우참찬 역임 **夢亮**의 58세 때 막내 아들

- **權慄** 장군의 사위.

- 권철의 손녀사위. 이항복과 '감나무' 일화 노인

- 별명: '농담정승'

오성(백사) 李恒福(1556 ~ 1618)

- 처가집 노비였던 정충신 장군 발굴: '이괄의 난' 진압

- 본인, 가문, 주변 모두 임진왜란 등 국난 극복의 주역들

→ 출신보다 인물의 됨됨이와 능력 파악 식견 보유

- 후일 함께 재상이 된 **李德馨**과 돈독한 우정, "오성(**鰲城**)과 한음(**漢陰**)의 우정과 해학이 얽힌 일화' 다수 전래

- 1580년(선조 13) 25세. 알성문과 병과 급제,
이덕형과 동시에. 이때 처음 만나 우정 시작 30년간 동행*

오성(백사) 李恒福(1556 ~ 1618)

- 1581년 검열(檢閱), 1583년 이이의 추천으로 한음과 함께 **賜暇讀書**.
- 1589년 예조정랑으로 **鄭汝立**의 옥사 참여.
- 1590년 그 수습한 공으로 **平難功臣** 3등
- 1592년 임진왜란시 도승지로 선조를 **扈從**하여 의주행. 전란 중 병조판서.
- 1592년 한음을 명나라에 급파, 파병 요청,
- 1592년 국왕의 근위병 모집 주력.

오성(백사) 李恒福(1556 ~ 1618)

- 1595 이조판서.

이후 영의정 및 卒까지 한음과 서로 번갈아 동일 관직 및 임무수행

- 1597 정유재란 발발시 병조판서 재임용. 전란 지휘.

- 1598 명으로부터 '조선이 왜와 함께 명나라를 치려고 한다'는 오해를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목숨 건 **陳奏使** 자청, 탁월한 외교 능력으로 오해 풀고 전란 극복.

- 1599 우의정, 1600 영의정, 1602 **鰲城府院君**에 진봉.

오성(백사) 李恒福(1556 ~ 1618)

- 광해군 즉위 후에도 정승. **大北派**와는 정치적 입장 상이.
- **1613 이덕형 졸. 직접 염하고 묘지(墓誌) 지음**
- 1617년 **李爾瞻**등 강경대북파 주도의 **廢母論**에 적극반대
- 1618년 삭탈관직. **北靑** 유배. **卒**.
- 귀양가는 길에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 시조.

"철령 높은 재에 자고 가는 저 구름아
고신원루(孤臣寃淚)를 벗 삼아 띄워다가
임 계신 구중궁궐에 뿌려본들 어떠하리."

- 사후 복관, **淸白吏**에 녹선.
- 고향 포천 **花山書院**과 북청의 **老德書院**에 제향.
- 저서 《**白沙集**》 《**北遷日錄**》 《**四禮訓蒙**》 등 서울 부암동 별장터 '백사실계곡', 도봉동 등 유적지.

한음 李德馨(1561-1613)

- 본관 廣州. 자 明甫. 호 漢陰·雙松·**抱雍散人**. 시호 文翼.
- 1561년 한양 출생. 외가 포천. 어려서 자주 놀러 옴. 특히 14세 때 양사언 및 금수정 일화.
- 부친은 전 지중추부사 **李民聖**.
- 장인 영의정 **李山海**(동인/북인).
- 이지함(이산해의 숙부)이 이덕형의 인물됨을 알아봄.
- 부인 한산이씨는 왜적을 피해 자결.

한음 李德馨(1561-1613)

- 1580년(선조 13) 문과에 을과로 오성과 함께 급제.
- 승문원에 보직.
- 대제학 **李珥**에게 발탁되어 **正字**, 사가독서賜暇讀書. 오성과 함께 **博士**, 수찬·교리 등을 역임.
- 1591년 예조참판,
- 31세에 대제학을 겸임.
- 조선역사에서 가장 젊은 대제학.
- 1592년 **임진왜란 발발시 中樞府同知事**로서 대동강까지 온 왜군의 사신 겐소[**玄蘇**]와 단독 화의 교섭→ 실패. 이미 승기잡은 왜가 거절 → 왕을 **定州**까지 호종.
- **請援使**로 명에 가서 원병 요청→ 성공.
- 귀국 후 한성부판윤,
- **재란시 李如松의 접반관**. 병조판서, 이조판서,**訓鍊都監** 당상 등

한음 李德馨(1561-1613)

- 당색이 강하지 않았고 온유한 성격.
- 당쟁조절을 잘했으나 끝내 화를 면치 못함.

- 평상시 조용하고 인자하지만 절친 **李恒福**과는 기발한 장난과 우정이 얽힌 일화 다수

- 1613. 사망시 이항복이 너무나 슬퍼하며 직접 염하고 **墓誌**를 지음.

- 인조 때 복관되고, 상주의 서원과 포천의 **龍淵書院**에 제향. 문집 《**漢陰文稿**》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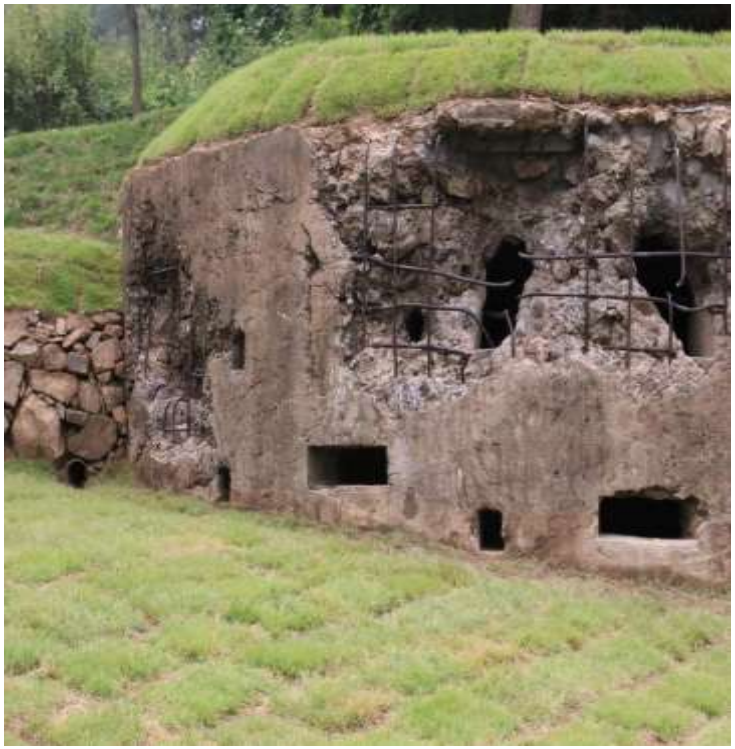
한음 李德馨(1561-1613)

- 1598년 우의정, 좌의정,
- 1601년 경상·전라·충청·강원도의 4도 도체찰사, 전쟁 후의 민심 수습과 군대 정비 노력

1602년 영의정

- 1608년 광해군의 즉위와 동시에 영의정에 복직
- 명이 **光海君**을 적통 왕으로 인정하지 않자 **陳奏使** 행
- 1613년(광해군 5) **永昌大君**의 처형과 **仁穆大妃** 폐모론을 반대하다가 대북파에 의해 삭탈관직,
- 낙향하여 경기도 **楊根** 및 광주 사저에 머물다 **病卒**
- 오성의 염과 묘지를 받으며 이승을 떠남

‘현대 한국전쟁과 포천’



출처12) 경기문화재단 동네유산 : 함께 쓰는 이야기 - 포천 방어벙커



출처13) 블러그. Naver.com//tt620

한음과 오성

▶我明宗大王十七年 辛酉二月十二日巳時 **公生于漢陽之南部誠明坊外第。生有異質 沈毅淳謹 不妄遊戲。**

▶我宣祖大王元年 戊辰 公八歲 始讀小學

▶**公十四歲 春 從舅氏柳相國 讀書于抱川 柳公家在抱川. 楊蓬萊士彦兄弟 士彦弟楓皐士俊 竹齋士奇 俱以文章筆藝名世. 過見公 大奇之 携公遊永平牛頭淵**. 金命世茂松小說. **稱永平錦水潭. 蓬萊先唱一律 公卽和曰 野闊暮光薄 水明山影多 綠陰白煙起 芳草兩三家** 仍唱和數十首. 愈出愈佳。蓬萊大驚曰 君我師也 非我敵也。遂手書四句。刻之錦水溪石至今宛然。茂松小說。**以此詩 爲公十歲作。而從碑誌編于是歲。**....

한음과 오성

- 五年丁丑 公十七歲 冬。聘夫人韓山李氏。領議政鵝城府院君山海女。右參贊趙貞簡公彦秀外孫也。土亭李公之菡卽鵝城公之叔父。而大有藻鑑。路見公知爲國器。歸語鵝城勸令妻之。
- 六年戊寅 公十八歲 秋。中監試兩解。生員試居首。進士試第三。始與白沙李相國恒福。定交。
- 肅宗大王十八年辛未 享于抱川書院. 抱川 公外鄕 嘗釣遊處也 以龍洲趙文簡公絅配享
- 十九年壬申 賜抱川院 額曰龍淵 遣官致祭.
- 英宗大王三十五年戊寅 特命不祧 遣禮官致祭
- 正宗大王元年丁酉秋 奉安影幀于龍淵書院

----------<漢陰文藁 年報>

‘오성과한음’

“오성과 한음의 생애와 치국, 임진왜란 극복”

“우정과 평화의 글로컬리티, 오성&한음과 포천”

조선시대, 특히 일제강점기 때 ‘오성과한음이야기’ 붐 이유

마무리

학습내용

- . 대한민국 주변 4강과의 관계

-. 남북문제를 둘러싼 주변국의 이해관계

-. 대한민국 현재와 미래의 외교적 과제

다음시간 학습안내

-. 한국전통문화

-. 한국의 유교문화

참고문헌 및 출처

참고문헌: Inside Korea, Hollym, 2024 개정판

출처1) 포천시청 누리집
출처1-1) 디지털포천문화대전(용연서원)
출처2) 디지털포천문화대전(화산서원)
출처3), 4) <論語>
출처5) <리시스>
출처6) <孟子>
출처7) 키케로, <우정에 관하여>
출처8) 앤서니 그레일링, <또다른 나, 친구>
출처9) 작자미상, 서울대박물관 소장
출처10) 작자미상, 서울대박물관 소장
출처11) 박대윤 기자, 인천투데이, 2025.03.16
출처12) 경기문화재단 동네유산 : 함께 쓰는 이야기 - 포천 방어벙커
출처13) 블러그. Naver.com//tt620